

한국의료건축가 발굴 및 업적 아카이빙의 요구

The Requirement Discovering and Archiving the Contributions of Korean Healthcare Architects

김상길 Kim, Sang-gil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한국 병원건축의 역사는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으로 시작한다. 대한제국시기와 정부수립을 거쳐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의료요구가 높아져 많은 병원들이 지어지게 되었다. 72년 한양대병원, 78년 서울대병원이 지어지고, 8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의료보험제도가 확대되고 198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의료수요증가에 따라 많은 병원들이 건립되었다. 83년 고대구로병원, 89년 서울중앙병원이 지어지고, 이 시기에 1980년 서울대학교병원 부설 병원연구소, 85년 한국 병원건축연구회(현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가 설립되었다.

90년대에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시작되고, 병원정보시스템, 전산화 등으로 대형화 고급화하며, 94년 삼성의료원, 94년 아주대병원, 95년 분당차병원이 건립되었다. 2000년대에는 의약분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요양병원이 건립되고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병원은 더욱 대형화, 고급화하여 2000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05 세브란스병원이 건립되었다.

이상과 같이 140여년에 걸친 한국병원건축의 흐름 속에서 각 시대에 따라 병원건축 연구 및 실무활동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은 의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현재 한국 의료복지 분야에서 요청되는 과제이다.

특히 초창기 병원 건축가들은 이미 작고하셨거나 은퇴하여, 많은 자료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사장되고 있어, 이제라도 기록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오늘날의 선진 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무수한 밤을 밝혔던 병원건축가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며 이를 후대에 전달하여 병원건축을 하고 있는 청년건축인에게 자량과 자부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설 주제는 소실 위기에 있는 1세대 병원건축가를 찾아 기록을 정리하고 헌정하는 것이며, 다음 세대로 이어져 2세대, 3세대 병원건축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현재 병원건축을 행하고 있는 의료건축인에게 격려와 응원이 되기를 기대한다.